

# ‘동북댐 관리’ 광주·전남 해묵은 갈등 해소

### 광주시, 상수원보호 구역 총괄 화순군, 적벽투어 시설물 관리 민선 8기 상호 이해·협력 성과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북댐 관리 등을 둘러싼 광주와 화순 간 해묵은 갈등이 민선 8기 들어 해소됐다. 광주시는 동북댐 상수원보호구역을 총괄관리하고, 관광명소인 적벽투어 구간 내 시설물은 화순군이 관리하기로 협약한 것이다.

민선 7기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던 광주·전남이 민선 8기 들어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반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난 31일 오후 화순 동북댐에서 광주·전남 생상발전 현안과제 중 하나인 ‘동북댐 수질개선 및 생상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열린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생상발전 위원회에서 동북댐 정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뒤 3개월 만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동북댐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총괄관리 ▲방향정으로 가는 적벽투어 구간 내 시설물 화순군 유지관리 ▲동북댐 관리자인 광주시가 총사업비 233억원 중 90%인 210억원을 10년간 분할 출연해 담 계획홍수위 5km 이내 지역 정비사업 추진 등이다.

화순 이서면에 있는 동북댐은 1971년 준공 후 1973년 5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광주시민의 상수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1986년 광역시로 승격되고 광주·전남이 광역 단위로 분리되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 요구와 관광명소인 적벽 활용 등 지역 개발을 바



지난달 31일 화순군 동북댐에서 열린 ‘광주·전남 동북댐 수질개선 및 생상발전 협약 체결식’에서 신정훈 국회의원·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구복규 화순군수(왼쪽부터)가 ‘생상발전 키’를 들고 사도의 상생을 다짐하고 있다.

라는 화순군과 시민 최대 식수원 보호를 주장하는 광주시의 대립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

갈등 해소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화순군은 지난해 1월부터 15차례 실무협의회를 열고 동북댐 관리권과 담 주변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논의했으며,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지난 7월 말 ‘광주·전남 생상발전위원회’를 열고 동북댐 관리권과 담 주변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생상 협약으로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이자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화순 적벽 일대 관광 활성화와 담 주변지역 생산기반 조성, 복지문화 및 공공 시설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정주 여건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전남이 커야 광주가 클 수 있고, 광주·전남은 공동운명체인 만큼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

고 새로운 상생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은 태생과 성장을 같이 한 역사·문화·경제 공동체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해왔다”며 “두 시·도가 마음과 힘을 모으면 해결하지 못할 사안이 없으니,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시·도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진도 주민의 손맛 제품으로 탄생했다

### 흑미·구기자 식혜·막걸리 출시 금호도·개들리 마을·전문가 협업

진도의 바닷바람과 햇살을 품은 흑미와 구기자로 만든 막걸리, 식혜 등 ‘전남 관광두레 상품’이 출시돼 지난달 28일 진도 개들리 마을 축제장에서 첫선을 보였다.

출시된 상품은 진도 금호도와 개들리 마을 주민들이 전문가와 협업해 만들었다. 진도 흑미를 발효해 만든 ‘흑미 막걸리’와 ‘금호도 생달 나무 막걸리’, 그리고 동네 어머니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왔던 손맛을 그대로 담은 ‘진도 구기자 식혜’, ‘흑미 식혜’ 등이다.

이 상품은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지원하는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진도 개들리 마을 공동체와 금호도 마을에서 각각 시제품으로 개발됐다. 지역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농가 소비 촉진을 위해 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쌀로만 만들어진 제품을 개발해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관광두레’의 진정한 가치를 살렸다는 평가다.

상품화 과정에서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막걸리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통성과 입맛 감성을 막걸리의 색과 향, BI를 통해 담아 차별화했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한국의 지중해로 불리는 진도는 최근 솔비치 리조트로 전국의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는데 진도의 해풍과 청정 자원을 결합해 만든 전통주와 식혜가 개발돼 주민 소득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심융합특구, 광주·전남 초광역협력 혁신거점 삼아야”

### 광주전남연구원, 네 번째 신규형발전전략

광주 도심융합특구를 광주·전남 초광역협력의 혁신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를 인근 담양·장성·화순·나주·영광 등 전남 5개 시·군과 연계해 광주 대도시권을 구축하면서 그 효과를 전남 전역에 확산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30일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에 게재한 보고서 ‘도심융합특구를 활용한 광주·전남 초광역협력 활성화 방향’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초광역 협력 전략의 추진 배경과 초광역권 공간 계획의 범위·유형을 살펴보고, 광주·전남의 초광역 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 담양·장성·화순·나주·영광 등과 연계 대도시권 구축 네트워크 구축할 기회발전특구 추진 계획 수립해야

연구원이 최근 발표하고 있는 네 번째 신규형성장전략이다.

연구팀은 광주·전남 초광역협력의 혁신거점인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자원 네트워크를 도심융합특구 중심으로 구축·연계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상무지구 일대 및 부산, 대구, 대전 등 4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돼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연구팀은 지방 대도시권과 그 주변 중소도시를

발전시켜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공간적 범위와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병진·신동훈·최우람 연구진은 “광주 연구개발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앞서 지정된 특구와 산업단지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자원의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의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도심융합특구 중심의 혁신자원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입지를 도심융합특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특구 지정 및 기업 유치 과정에서 광주·전남의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 수출 386억달러 ‘선전’

### 올 3분기까지 전년보다 25.6% 증가... 석유제품·농수산물 식품 효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전남도는 올 들어 3분기까지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전남지역 전체 수출액은 386억2000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상승했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대비 수출 비중은 7.4%로, 지난 6월 이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6위를 유지했다.

특히 실제 배럴당 90달러가 넘는 고유가 상황에도 경유, 제트유, 휘발유 등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석유제품 수출이 144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87.0% 증가하며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년 대비 수출단체 약세 속에서도 석유화학제품이 126억9000만 달러로 3.2% 증가했으며 철강제품이 58억4000만 달러로 1.4%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농수산식품은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른 수산물 시장 회복과 지속적인 현지수요 증가로 7.2% 증가한 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이 1억 6100만 달러로 7.5% 상승하며 농수산물 수출 상승을 견인했다. 이어 전복 3800만 달러로 47.1%, 오리탈이 2400만 달러로 21.0% 상승했다. 음료는 1500만 달러를 수출하며 72.9% 상승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호주 298.7%, 미국 32.6%, 일본 13.1%, 베트남 64.0% 상승했으나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7.6% 감소했다. 호주와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 불안 영향에 따른 재고 비축 수요와 동절기 난방 및 여행 수요 증가로 경유, 항공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